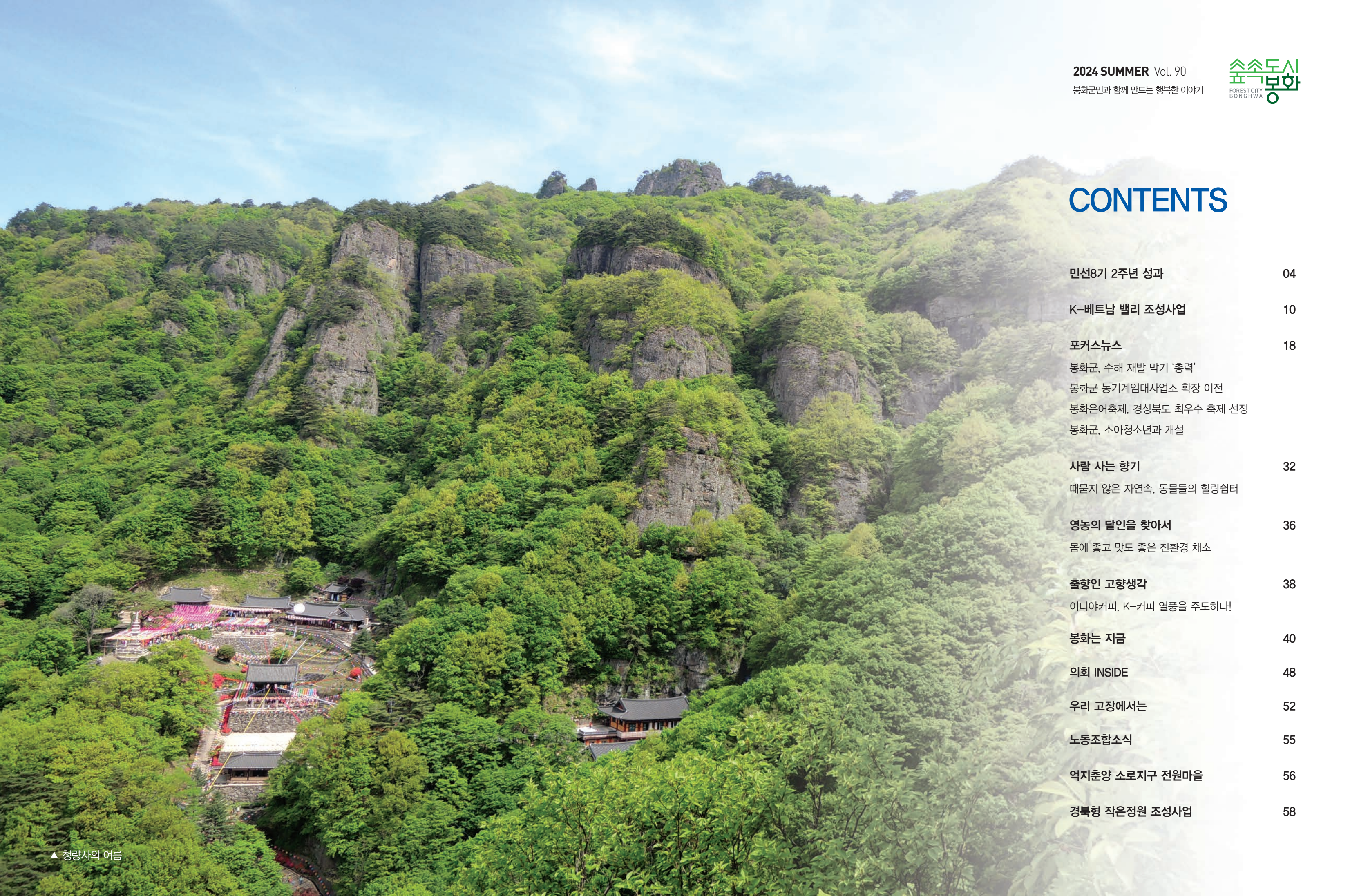


Life in Bonghwa는 봉화군민의 희망차고 행복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Life in Bonghwa

2024 SUMMER(여름호) 봉화에서의 삶

▲ 청량사의 여름



CONTENTS

민선8기 2주년 성과	04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	10
포커스뉴스	18
봉화군, 수해 재발 막기 '총력'	
봉화군 농기계임대사업소 확장 이전	
봉화은어축제, 경상북도 최우수 축제 선정	
봉화군, 소아청소년과 개설	
사람 사는 향기	32
때문지 않은 자연속, 동물들의 힐링쉼터	
영농의 달인을 찾아서	36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친환경 채소	
출향인 고향생각	38
이디야커피, K-커피 열풍을 주도하다!	
봉화는 지금	40
의회 INSIDE	48
우리 고장에서는	52
노동조합소식	55
억지춘양 소로지구 전원마을	56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사업	58

민선8기 취임 후 주요 군정 성과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가는 **초심**으로...



이제 7월이면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지난 2년 동안 군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우리 공직자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의미있는 여러 성과를 거뒀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 약 1.5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인 ‘봉화 양수발전소’ 유치에 성공하여 한국중부발전이 봉화에 양수발전소 추진 사무소를 개소해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봉화군 최초로 소아청소년과를 신설해 우리 아이들이 인근 도시로 원정 진료를 가야 하는 어려움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농촌인력 확보를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였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과 MOU를 체결하고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농업인 근로자 숙소’ 건립을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유입하여 농가 일손을 돕고 있다.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K-베트남 밸리 조성 사업을 위해 4억 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11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떠오르는 관광지로서 새롭게 부각하는 산타마을에 대한 관광객의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해 폐교를 매입하여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있으며, ‘겨울왕국 분천 산타마을 관광명소화 사업’과 ‘분천 산타마을 킬링

콘텐츠 확충 사업’을 시행해 산타 하우스, 사계절 썰매장, 미니 기차, 산타 전망대 등 체험형 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있다.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농업 생산력을 증대하고, 농업을 미래 첨단산업과 연계해 청년의 농업 분야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창업농 스마트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과 스마트 농업 예비 창업농, 기존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9월 완공을 목표로 ‘스마트 온실 테스트 베드’를 조성하고 있으며 임대농 수용을 위해 내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27억원을 투입해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여름 폭우로 인해 지역에 큰 피해를 보았으나 군민과 공무원, 자원봉사자가 힘을 합쳐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지난 2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초심을 유지하며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활력 넘치는 봉화, 청년들이 어깨펴는 봉화,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봉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박현국 군수 취임식



▶ 봉화군-베트남 뜨선시 우호협력 협약식



▶ 기획재정부장관 수해 지역 방문



▶ 봉화해성병원 소아청소년과 개소식



▶ 한겨울 분천 산타마을 개장식





▶ 봉화양수발전소 유치 감사 행사



▶ 봉화군 농기계임대사업소 개소식



▶ 봉화군 약용버섯종균센터 개소식



▶ 찾아가는 열린 군수실



▶ K-베트남 벨리 조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유인촌) 방문

국내 유일 베트남 리 왕조 유적 보유한 봉화군

한국과 베트남의 새로운 800년을 여는 K-베트남 벨리 조성사업 추진 박차

봉화군이 한국과 베트남의 새로운 800년을 여는 핵심사업으로 K-베트남 벨리 조성사업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봉화군은 봉성면 창평리 베트남 리 왕조 후손인 화산 이 씨의 유적지 일대를 K-베트남 벨리로 조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마을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베트남 선조의 흔적이 남아있는 한국 속의 베트남으로 통한다. 봉화군은 리 왕조 유적을 중심으로 K-베트남 벨리를 조성해 한국과 베트남 교류의 주요 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 K-베트남 벨리 조성 조감도

봉화군과 베트남의 관계는 약 800년 전부터 시작됐다. 베트남 리 왕조 6대 영종의 아들 이용상은 1224년 쩌왕조에 의한 쿠데타를 피해 황해도 웅진군 화산면에 정착했다. 그는 몽골과의 전쟁에서 공을 세운 공로로 사성 받아 화산이 씨의 시조가 됐고 그의 둘째 아들인 이일청이 안동부사로 내려와 봉화에 정착하며 봉화 일대를 중심으로 화산이 씨의 가계가 이어져 왔다.

봉화군에는 충효당, 유허비, 재실 등 베트남 최초의 장기 독립왕조인 리 왕조 유적지가 국내 유일하게 남아있으며 직계 종손과 후손들도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어 한국과 베트남 교류의 핵심지역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받는다.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있는 봉화군은 살아남기 위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킬링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베트남 리 왕조의 인연에서 찾았다. K-베트남 벨리가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교류의 다리가 되고, 미래 세대에게 두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내다봤다.

K-베트남 벨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000억 원을 투입해 봉성면 창평리 충효당과 창평저수지 일대 약 11만9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역사지구, 문화교육지구, 휴양지구, 교류의 길 등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충효당이 있는 역사지구에는 충효당 유적지 개발과 리 태조 동상 건립 등 역사적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며 문화교육지구는 한-베 역사문화 콘텐츠 체험관, 다문화 국제학교, 진로연계센터, 연수·숙박시설, 상업시설 등으로 꾸며진다.





① 베트남의 역사와 상징성을 담은 천년의 길 ② 베트남의 역사와 상징성을 담은 천년사원
③ 베트남의 구국 신화와 환검전설의 이야기를 담은 거북이 조형물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국제자매결연 도시인 베트남 뜨선시와 우호 교류단 방문과 병행해 학생, 문화, 예술 교류 등 다양한 방면에서 관계를 발전시킬 예정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이 성공한다면 지방인구 소멸위기에 직면한 경북 북부지역의 베트남 관련 관광 활성화와 생활 인구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며 “한국과 베트남의 새로운 800년을 위한 핵심사업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봉화신문

휴양지구에는 베트남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다랑이는 체험장, 연꽃 모양의 게스트하우스, 사당 및 정원이 만들어진다. 교류의 길에는 탐방로, 수변정원, 수상가옥, 인도교 등이 조성된다.

이 사업은 K-베트남 밸리 콘텐츠 육성 연구용역을 위해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신규사업에 국비 2억 원을 포함 총 4억 원이 반영되면서 더욱 탄력이 붙었다. 봉화군은 용역 결과에 따라 신규사업을 신청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와 병행해 올해 약 11억 원의 예산으로 K-베트남 밸리 다문화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약 35억 원의 예산으로 베트남연꽃공원을 조성해 사업의 마중물을 부을 계획이다. 동시에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의 타당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K-베트남 밸리 조성의 핵심

주체인 베트남 다문화인들을 대상으로 문화 교류 행사와 경제 특강 등 다양한 문화 경제 교류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리 왕조 개국일을 기리는 베트남 뜨선시 덴도 축제에 방문해 본격적인 협력을 약속받기도 했으며, 지난해 9월 열린 봉화송이한약우축제에서는 축제 기간 중 하루를 베트남의 날로 정해 베트남 리 왕조를 주제로 한 창작뮤지컬 ‘리옹프엉’을 선보이고 봉화군-뜨선시 간 국제자매결연 협약을 맺었다.

또한 최근에는 한-베 문화교류 캠프 연계사업으로 재한 베트남여성연합회 초청행사를 열어 베트남 리 왕조 관련 유적지를 탐방하고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 관련 참여 및 역할 분담을 논의하며 사업 추진력을 확보했다.



국내유일, 과거와 미래를 잇는 한-베 교류 협력의 상징 문체부 장관, 주한베트남 대사 K-베트남 벨리 사업대상지 방문

경상북도(지사 이철우)와 봉화군(군수 박현국)은 6월 13일 경북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 K-베트남 벨리 조성사업 대상지에서 진행한 「베트남 리왕조 유적지 충효당 방문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로컬의 재발견 대구·경북(안동, 봉화)'방문의 일환으로 개최된 「베트남 리왕조 유적지 충효당 방문행사」는 한-베 수교 30여년간 특히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동반 성장한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경북에 펼치기를 바라는 열망에서 추진되었다.





경북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베트남 리왕조 유적지인 충효당, 유허비, 재실이 남아 있고 직계가족들이 살고 있다. 베트남 리왕조는 중국의 속국에서 벗어난 최초의 장기 독립왕조로 베트남 국민의 정신적 지주인 호치민 주석이 생전에 몇 번이나 존경을 표시했던 독보적 위상의 왕조이다.

이 역사적 연원을 바탕으로 경북 봉화군에서는 「K-베트남 벨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번 방문행사는 동 사업이 한국과 베트남 양국을 잇는 문화교류기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 요청을 위해 경상북도지사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초청으로 성사 되었다.

또한 「K-베트남 벨리 조성사업」이 양국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국가 對 국가 사업임을 알리기 위해 주한베트남 대사도 함께 행사에 초청되었다.

이날 행사는 베트남 이주배경인 가족의 환영 세리머니에 이어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환영사, 유인촌 문체부 장관·부호 주한베트남대사 및 임종득 국회의원의 인사말, 박현국 봉화군수의 사업 현황 브리핑 및 건의사항 제안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의 영원한 우정을 상징하는 소나무 기념식수 행사와 화산이씨 문중, 베트남 이주배경인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현장소통 간담회가 개최되어 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우리 봉화군이 추진하고 있는 K-베트남 벨리 조성사업대상지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부호 주한베트남대사님,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님, 임종득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을 초청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이 사업을 우리 경북 봉화만의 사업을 넘어, 한국과 베트남의 새로운 800년을 위한 교류거점이 되어 향후 경북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K-베트남 벨리는 양국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문화교류협력의 거점”이라며, “경북에서 시작한 국가차원의 문화콘텐츠를 확대하여 지방소멸과 저출산에 대응하고, 미래 이주사회의 공존을 실현할

수 있는 선도모델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우리 정부와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K-베트남 벨리 조성사업은 국내 유일한 베트남 리왕조 유적지의 개발을 통해 한-베 양국간의 우호 증진과 이주배경인들의 교류공간 및 관광지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양국가간 우호협력과 다양한 민간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민자를 포함하여 약 2,00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해피해의 아픔을 씻어내도록... 봉화군, 수해 재발 막기 '총력'

지난해 여름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피해가 컸던 봉화군이 수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해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항구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신속한 복구를 진행하며
주민들이 안심하는 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즉각적 응급 복구 추진!

먼저 군은 응급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신속히 추경성립전예산 40억 원을 편성해 10개 읍면에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대를 교부했다. 하천 제방 붕괴 복구, 마을진입로를 포함한 주요 도로 응급복구, 사면정비 등 주민생활 불편함과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역 민간단체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자발적 수해복구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특히 수해 발생 이후 약 한 달여간 각 담당부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매일 현장을 방문해 응급복구현장을 위로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등 공직자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과 모범을 보였다.

주민생활안정화를 위한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

군은 수해 피해를 입은 4,614세대에 135억 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 원칙으로 지급 완료해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했다. 특히 주택 전파,

반파 등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10가구 21명을 위해 임시조립주택을 설치하는 등 생활보급자리를 조속히 마련했다. 임시주택은 이재민들이 기존의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거주지 주변에 설치했으며 최장 2년 동안 지원된다.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생활가전제품도 지원했으며 TV 요금 지원, 전기요금 감면 등 공공요금 지원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삶의 터전을 새로이 일궈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호우 피해 복구액 558개소, 국비 1,566억 원 확보!

군에서는 조속한 피해 복구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호우피해 개선복구사업 투자우선순위에 참석하는 등 국비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피해가 발생한 구간만 땀질식으로 원상복구할 경우 지금과 같은 폭우 시에는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으니 피해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 의결된 확정 복구계획에 군에서 요구한 개선복구사업 112억 원과 그 외 하천의 기능복원사업 124개소 947억 원이 반영되는 쾌거를 거뒀으며, 특별재난지역선포에 따른 국고 추가 지원 또한 490억 원에 달한다.

재피해 방지를 위한 항구적 복구 추진!

군은 피해시설의 단순 원상복구를 넘어 재해예방을 위한 전면적 개선복구 추진에 힘쓰고 있다. 호우에 유실됐던 하천정비,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및 교량 재가설, 사면피해 복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작년 10월 수해복구 조기 추진 T/F를 구성해 인력 자원을 총동원하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복구금액이 10억 이상인 7곳을(지구단위 2곳, 도로시설 2곳, 하천 1곳, 산림 2곳)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고 있다.

주요복구 공사에 대해 신속한 발주를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복구비 교부 전에 군 예산을 긴급히 편성해 실시설계를 조기에 발주, 지난해 12월 중 완료했으며, 재해복구 추진 지침에 따라 3억 원 미만 현장은 4월, 50억 원 미만 사업은 6월까지, 50억 원 이상 현장은 10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시설의 단순 원상복구를 넘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의 전면 개선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봉성면 오그래미 지구(수로개선 1km, 마을안길 0.4km), 소천면 살래천 지구(도로 1.6km, 하천 0.8km)는 군에서 직접 공사를 실시하며, 경상북도가 관할하고 있는 지방하천인 봉성면 창평천, 춘양면 운곡천, 상운면 구천과 토일천 지역에도 750여억 원을 투입해 경상북도에서 주변 환경에 적합하게 하천 복구 공사를 실시한다. ▶



봉화군 농기계임대사업소 확장 이전!

넓은 공간과 새로운 시설구비, 스마트 임대시스템 도입으로 농가지원 강화

봉화군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확장 이전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나섰다.



봉화군은 4월 30일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새로 이전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봉성면 금봉리 산161-13번지에 위치하며, 국도비 포함 53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6,607㎡, 연면적 1,674㎡ 규모(임대동 1,000㎡, 정비동 674㎡)로 조성됐다.

지난해 12월 신축돼 군은 3월 초부터 새로 완공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확장 이전한 본소와 춘양면과 명호면의 임대사업소에는 총 16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67종 580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279농가에서 6,135건의 임대 농기계를 이용해 인력난 해소와 농작업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전한 새로운 장소는 기존보다 더 넓은 공간과 개선된

시설을 갖추고 있어 농업인들에게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농업인들의 고가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지역농업 여건에 맞고 농가가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추가로 구입해 농가에 임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봉화군은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위해 스마트 원스톱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한다. 스마트 원스톱 농기계 임대사업은 기존 농기계 임대서비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며 농업 생산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 키오스크(무인안내기)를 설치해 농업인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농기계임대 예약, 출고, 결제 등을 간편하게 농업인 혼자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온라인 예약과 실시간 재고 확인이 가능한 임대 농기계 신청 서비스도 제공해 농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농기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KT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봇’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휴일 및 야간 등 24시간 전화 상담 및 예약이 가능하도록 해 농업인들 에게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봉화군은 임대 농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트랙터와 농업용 굴착기 등의 임대는 해당 기계 사용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에 한 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농기계임대 사업소에서는 연중 2회 교육을 실시해 이론과 실습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봉화군에서는 코로나19 여파와 지난해 농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올 연말까지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춰 농가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앞으로도 농가가 저렴한 임대료로 농기계를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은어야 놀자! Let's go 봉화로!

2024. 7. 27토 ~ 8.4일
9일간

제26회

봉화 은어 축제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천 일원

은어야 놀자! Let's go 봉화로! 봉화은어축제, 경상북도 최우수 축제 선정!

청정 1급수를 찾아 낙동강 1300리를 거슬러 내성천까지 올라왔던 은어를
은어잡이라는 재미성을 가미한 축제로 승화한 봉화은어축제가
어느덧 26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봉화은어축제의 태동은 낙동강 1300리의 또다른 발원지인
내성천 상류에서 떡 감고, 물장구치고, 옥수수과 감자
등 청정 자연이 주는 선물과 즐거움을 도시민들에게도
나눠주고 지역경제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은어는 오염되지 않은 낙동강, 섬진강 등 하천 상류의
청정 1급수에서 서식하는 민물고기로 낙동강과 한강수계
최상류에 위치한 봉화군은 이런 점에 착안하여 '은어의
청정 이미지를 테마로 한 국내 최고의 여름문화축제'를

매년 내성천 일원에서 학생들의 여름 방학이자 직장인
들의 휴가철에 맞추어 개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진행된 2024년도 경상북도 지정 축제
선정 심사에서 '봉화은어축제'가 도내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올해 봉화은어축제는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9일간 개최된다. "은어야 놀자! Let's go 봉화로!"라는
슬로건으로 더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봉화은어축제는 반두잡이와 맨손잡이를 모태로 매년 한여름 휴가철 관광객들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하는 업그레이드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연일 계속된 집중호우로 1년을 공들여 준비한 축제가 취소가 되었던 아픔이 있었고, 그래서 더욱 올해 은어축제는 작년의 아쉬움을 함께 담아 풍성하고 다채로운 행사로 준비하고 있다.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인 반두잡이와 맨손잡이, 은어 낚시를 비롯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문화 선진화 캠페인 및, 은어 굿즈샵 운영, 은어축제와 연계한 가족건강 걷기대회 등 풍성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은어 반두잡이와 맨손잡이, 야간 반두잡이, 은어 구이체험은 도시민들의 눈과 귀와 입맛을 사로잡았으며,

어른들에게는 동심을, 아이들에게는 대자연 속에서의 독특한 체험을 선사해 왔다.

축제가 오늘의 성공에 무엇보다 축제의 주인인 지역단체 및 주민 봉사와 참여가 원동력이 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봉화군의 모든 기관과 단체에서 축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성공적인 축제 개최의 자양분이 되었으며, 봉화군민들의 화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고 주민들이 축제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로 발전하였다.

봉화은어축제가 백두대간의 중심 청정봉화의 자연이 주는 기쁨을 관광객들에게 나눠주고자 시작된 만큼 26회를 맞은 봉화은어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무더운 여름 삶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더욱 희망과 활력을 주는 축제로 성장하고 세계인들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기를 기대해 본다. 



“아이 아파도 걱정없어요!”

봉화군, 소아청소년과 개설로 아이 진료 걱정 ‘뚝’

2023년 7월 봉화해성병원에 문 열어 3천명 넘게 진료 봐...
먼거리 이동 불편 해소

저출생 장기화로 인한 소아, 청소년 수 감소와 맞물려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봉화군에서는 지난해 군 최초로 소아청소년과가 문을 열어 주목받고 있다.



봉화해성병원 2층에 문을 연 소아청소년과는 봉화 내 유일한 소아청소년과로 지난해 7월 3일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0세에서부터 24세까지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평일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되고 있다.

봉화해성병원은 봉화군의 지원을 받아 본관 2층에 49평 규모로 외래 진료실, 처치실, 대기실, 입원실 리모델링을 완료해 쾌적한 진료 환경을 조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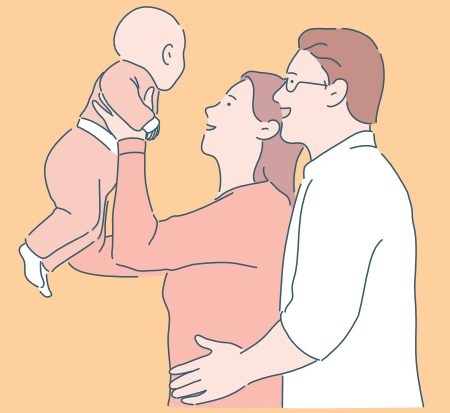
병원 2층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병원을 찾는 어린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놀이시설을 제공하고 소아 병실을 따로 분리해 신설했으며, 환자 감시장치 등 31종 장비를 갖추고 소아, 청소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전까지 외지로 나가서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던 군민들은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관내 소아청소년과 진료에 크게 호응하고 있다.

아이와 함께 병원을 찾은 한 주민은 “예전에는 아이가 아프면 영주나 안동으로 가야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는데, 이제는 봉화에 소아청소년과가 생겨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말했다.

그간 봉화군은 산간 지역 특성상 의료 접근성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분야 병의원이 사라지면서 지역 주민이 인근 도시로 원정 진료를 가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이유로 봉화군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최우선 군정 과제로 삼고 인구 늘리기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소아청소년과 신설을 추진했다.



의회와 군민들의 지지를 받아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및 간호인력 인건비와 시설 리모델링비 및 장비구입으로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올해도 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지만 봉화군은 의료기관과 힘을 합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과 간호사 등 전담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봉화해성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동구 전문의는 봉화군 출신으로 아이들을 위해 마지막 남은 의사 생활을 하고 싶다는 고향으로 내려와 진료를 보고 있다. 2023년 7월 진료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3,500여 명이 진료를 봤으며, 인근 지역인 영주시와 태백시에서도 진료를 보러 올 정도로 환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봉화**



때묻지 않은 자연 속, 동물들의 힐링쉼터!

이한경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백두산호랑이보존센터 사육사

호랑이는 우리나라의 건국신화에도 등장하고 올림픽대회의 마스코트로 선정될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이다. 원시시대에는 경외의 대상이자 숭배의 대상이었고, 산악숭배사상과 융합되어 산신신앙으로 자리 잡았다. 풍수에도 등장하며 설화나 민화에서는 위엄이 있으면서도 애교가 있고 신성한 영물로 등장할 정도로 친숙한 대상이다. 옛날에는 호환이라 하여 민가에 나타나 피해를 줄 정도로 많았으나 1946년 평안북도 초산에서 1마리를 잡은 것을 마지막으로 멸종되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호랑이 숲'이라는 이름의 복원 방사장을 마련하고 백두산호랑이(정확한 학명 시베리아호랑이)의 종 보전과 야생성을 지키기 위해 자연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수목원 내 백두산호랑이보존센터에서 호랑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찰, 보호하고 호랑이 복지와 보존에 힘쓰는 이한경 사육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사육사라는 직업을 꿈꾸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유년시절부터 반려견을 키워 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어 야생동물을 사육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히 해왔고 현재는 그 꿈을 이루게 되어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는 어떻게 근무하게 되셨는지요?

타 지역동물원에서 처음 초식동물 관련 일을 하며, 막연히 맹수 그중에서도 호랑이에 대한 사육관리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산림청에서 수목원에 호랑이 숲을 조성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수목원 내 백두산호랑이 보육센터에 대해 소개해주신다면?

산림생물자원의 보호와 보전을 목적으로 조성된 백두산 호랑이보전센터 호랑이 숲은 자연 지형 및 식생을 최대한 활용한 자연생태형 호랑이 서식지입니다. 그리고 3.8ha(축구장 5.4개) 규모로 단일동물 대상 국내에서 가장 넓은 크기의 방사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두산호랑이보전센터 직원들은 호랑이 종 보전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 및 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육사님의 하루 일과는 어떠하신지요?

오전 8시에 출근을 하면 호랑이 상태관찰을 진행합니다. 밤사이 아픈 개체는 없었는지, 개체 간 투쟁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이후 방사 준비를 위해 방사장에 들어가 시설물 점검과 호랑이 분변수거 등 환경미화회를 진행합니다.

10시에 호랑이 방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내실청소 및 호랑이 사료 조리를 하고 패트롤카 근무를 들어갑니다. 패트롤카에서는 호랑이 활동량 및 개체별 특이사항 등을 기록합니다. 오후 5시 호랑이 입사가 완료된 이후에 다시 한 번 상태관찰을 하며 이상이 없으면 사료를 급여합니다. 사료 섭취까지 정상적으로 완료된 이후 잠금장치 확인 및 뒷정리 이후 퇴근합니다.

호랑이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기본적으로 닭고기 3~5kg, 소고기 1~1.5kg을 주 6일 급여하며 특식으로는 소간, 소등뼈, 우족 등을 지급합니다. 호랑이 관리 시 어려운 점은 야생동물이다 보니 아파도 아픈 모습을 본능적으로 숨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파악해야하는 점이 어렵습니다. 백두산호랑이는 호랑이

여섯 아종 중 한 종으로 아종 중 가장 몸집이 큰 종입니다. 또한 다른 아종보다 털 빛깔이 옅으며 몸 아래쪽 흰 부분이 다른 아종보다 넓으며 머리가 크고 다리가 굵은 것이 특징입니다.

사육사가 지녀야 할 자질이 있다면?

동물관련학과에서 배움을 통해 기본적인 동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사육사는 사무 업무보다는 현장 업무가 많아 기본적인 체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픈 곳을 숨기는 호랑이의 특성상 작은 이상 징후라도 파악할 수 있는 관찰력 또한 중요합니다.

사육사를 하시면서 직업적으로 어떤 만족감을 얻고 계신가요?

서로 말은 통하지 않지만 제가 호랑이를 위해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호랑이들이 잘 따라와 주는 모습을 보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호랑이가 처음 저희 수목원에 왔을 때 새로운 환경과 타개체들을 낯설어하며 위축된 행동을 보였지만 개체 간 얼굴 익히기 훈련, 단계별 방사장 적응훈련을 통해 방사장을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미래 사육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최근 야생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사육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동물이 귀여워서, 좋아서 이 일을 시작하려는 분이시라면 상상하는 것과는 다른 상황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관리하는 사육사는 직업 위험도가 높으며 많은 희생정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현실에서도 사육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관리하는 동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언제나 변치 않는 애정과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찾으시는 관광객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최근에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관람 에티켓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일부 관람객 분들이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호랑이의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에 소리를 지르시거나, 돌을 던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행동은 호랑이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관람 시 큰 소리로 인사 말고 눈인사 부탁드립니다.

때문지 않은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곳, 다양한 식물들과 호랑이가 살고 있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야말로 최고의 힐링 공간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인간의 보호 활동이 없다면 호랑이는 머지않은 미래 지구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현재 남아있는 서식지에서, 그리고 우리 땅 어딘가에서 호랑이가 살아남아 있기를 바라본다. 한글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친환경 채소,

보약이 따로 없다!

김남웅 | 법전면 소지리 이장

지구와 농가를 살리는 친환경채소, 대형마트마다 친환경 식품코너가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무심코 먹어온 먹거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현대사회의 중요성이 더해지면서 친환경 농산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이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약과 화학비료 등 합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말한다. 친환경 농산물은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함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맛과 향이 좋고 영양가 함량도 높다. 또한 농약 잔류물 걱정 없는 안전한 먹거리로 건강한 식습관을 길러준다.

봉화에서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김남웅 법전면 소지리 이장을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봉화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는 8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나 그 시절 누구나 그랬듯 농사를 짓는 부모님을 돕고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농사를 접하고 자랐다.



봉화 친환경작목반이 결성되면서 그가 친환경 농산물을 접한 지는 10년이 넘었다.

태백산맥 남단에 위치한 고랭지지역인 봉화의 친환경 채소는 아침저녁 큰일교차를 견디며 자라나 더 단단하고 영양이 짙다.

코로나로 학교 급식 등이 줄면서 매출이 급감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에도 기여하는 등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으로써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올해 봉화군 친환경채소 작목반에서는 26억 정도의 매출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한다. 작목반에서는 샐러드 채소인 양상추, 양배추와 감자, 무, 브로콜리 등을 재배함으로써 친환경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활성화에 힘을 예정이다. 그리고 올해는 라디치오도 새롭게 계약재배중이다.

이탈리안 치커리라 불리는 라디치오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엽산, 칼륨이 풍부하다. 약간 씹쌀한 맛이 나며 붉은 색을 띠고 있어 샐러드 등 여러가지 요리에 활용된다.

비타민U가 많은 양배추는 위장병에 특효가 있으며 샐러드, 찜, 볶음요리 등에 널리 쓰이고 있다. 칼로리가 적고 영양소가 다양하게 들어있는 것으로 유명한 양상추는 체중 감량에 좋다. 그밖에 감자, 브로콜리 등 건강가득한 채소를 재배 중이다.

친환경농가의 매출이 증가할 땐 보람도 느꼈지만 급격한 기후변화와 코로나 등의 이유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친환경작목반 회원 수도 크게 줄어들어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친환경농법의 어려움과 농민들의 고충을 몸소 체험했기에 새롭게 친환경채소를 재배하려는 분들에게 적극 권할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특히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미생물 제제만으로 해충방제가 쉽지 않아 농민들에게 큰 고민을 안겨주기도 하는 실정이다. 또한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도 농민들을 힘들게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고생하는 농민들과 그 결실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봉화군에서 조금 더 홍보에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다.

신선하고 건강하고 맛있는 친환경채소는 환경보호와 건강한 식습관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다. 친환경 채소의 매력과 장점은 무수히 많다. 건강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이런 소비 트렌드는 계속 될 거라 생각된다.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 재배하여 뛰어난 식감과 맛뿐만 아니라 건강과 환경까지 생각하는 친환경농산물이야말로 채소의 미래가 아닐까?

자연 친화적 도시 봉화에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오늘도 분주히 값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농민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토종 커피 프랜차이즈 '이디야 커피'

K-커피 열풍을 주도하다!

문창기 | 이디야 커피 대표이사 회장



처음에 어떤 계기로 이디야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의 소비자 만족도 1위의 자리까지 오시게 되었나요?

제가 투자자문사를 운영 중이던 때, M&A 의뢰를 받으며 접하게 된 것이 이디야커피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당시 이디야커피는 매장 수도 적고 규모도 아주 작은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밝은 표정의 점주님들의 모습과 맛있는 커피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 직접 인수하며 지금의 이디야커피가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맛있는 커피를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고객에게 진심을 담은 커피를 제공하고 나아가 고객, 가맹점주, 협력사와의 상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업계 최초 CCM(고객중심경영) 인증과 함께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디야 커피의 경영철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이디야커피에는 '정, 애, 락'의 경영철학이 있습니다. 기분을 지키는 정직한 기업,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기업, 신나고 즐거운 행복한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이디야커피의 철학입니다. 또한, '상생'을 경영 제1의 원칙으로 삼아 고객, 가맹점주 그리고 협력사와의 상생을 통해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치않는 경영철학과 원칙으로 고객분들께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겠다는 저희의 마음이 고객분들께도 닿아 20년 넘는 시간동안 이디야커피를 사랑해주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토종 국내 브랜드 커피로 널리 알려진 이디야 커피만의 시장 경쟁력은 어떻게 있을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커피 맛을 지키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커피연구소를 설립해 연구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고, 과감한 시설투자를 통해 경기도 평택에 자체 생산 시설인 드림팩토리를 준공하였습니다. 이는 생두의 수입부터 가공과 생산까지 모두를 직접 관리하며 최고 품질의 커피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디야커피의 의지이며, 나아가 직접 공장을 운영함으로써 가맹점주님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저희만의 경쟁력입니다.

최고의 커피를 만들기 위해 업계 최고의 전문가를 영입하며 인적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직원 교육에도 적극 투자하며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커피산업시장이 포화상태라는 우려가 많은데,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커피시장의 성장가능성과 앞으로 이디야 커피의 미래 사업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과거부터 국내 커피산업시장은 포화상태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디야커피는 20년 넘게 대한민국 대표 커피 브랜드로 성장하며 대한민국 커피의 우수성을 알리고 좋은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디야커피는 급변하는 국내 커피 시장 속에서 '커피에 대한 진심'과 '가맹점 상생'이라는 경영철학 아래 꾸준한 가맹사업을 전개하며 업계 최초 4,000호점 오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커피는 단순한 식품을 넘어 문화를 즐기는 매개체로서 자리잡은 만큼, 앞으로의 커피시장도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의 매장부터 홈카페 등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의 커피를 즐기는 문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디야 커피의 해외 진출 현황은 어떻게 되시나요?

실제로 이디야커피는 국내 시장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결집해 글로벌 시장에서 사랑받는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대만, 뉴질랜드, 호주 등 23개 국가에 스틱커피, RTD 등 다수의 유통제품을 수출합니다. 작년 12월에는 첫 해외가맹점인 괌 1호점을 오픈하며 차별화된 품질과 특색있는 메뉴로 관광객과 현지인들에게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연내 괌 3호점까지 추가 오픈 계획입니다.

올해 6월에 진행한 말레이시아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식에는 말레이시아 VIP를 포함해 현지 언론과 예비 창업주 등 약 250여명이 함께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MF 계약 체결식은 이례적인 사례로 꼽히며 현지 시장 관계자들과 고객이 '이디야 커피'라는 한국의 커피 브랜드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디야커피가 글로벌 커피 시장에서 전 세계 고객분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로 거듭남은 물론, K-커피 열풍을 주도하며 세계 곳곳에서 이디야커피를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디야 커피 대표로서 올해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 혹은 개인적인 소망이나 바람이 있으시다면?

이디야커피의 목표는 더 많은 고객분들이 질 좋은 맛있는 커피를 쉽게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맹점주님들과 협력사와의 상생을 통해 함께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고, 많은 고객분들께는 좋은 커피로 위로와 따뜻함을 전하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아울러, 비니스트와 같은 스틱원두커피, 커피믹스, 컵커피 등 이디야커피의 다양한 제품들을 전 세계에 선보이며 이디야커피를 더 많은 분들이 맛보고 즐기실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어릴 적 고향 봉화에서의 추억이 있으시다면?

제 기억 속 봉화는 지금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내성천에서 친구들과 매일 같이 수영하고 물고기를 잡으며 뛰놀던 시간들은 아직도 돌아가고 싶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봉화의 모습을 간직하고, 봉화를 찾아주시는 분들께도 제 어린 기억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회장님이 바라보시는 현재의 봉화는 어떤 모습이며 앞으로 봉화지역이 어떻게 발전되었으면 하시는지?

봉화는 과거부터 맑은 물과 좋은 토양 덕분에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좋은 농산물 또한 풍부한 지역입니다. 앞으로도 봉화 은어축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행사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봉화를 찾고, 봉화의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함을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양수발전 사업과 K-베트남밸리 조성 등 다양한 국책 사업을 통해 더욱 더 살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봉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고향 봉화에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봉화를 떠나있어도 어린 시절 저를 품어주던 봉화는 늘 그리운 고향입니다. 저처럼 봉화에서 나고 자란 몇몇의 봉화 출신의 기업인들이 작년 수해복구를 위한 지원금을 모금하고, 봉화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봉화의 성장과 발전에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국 군수님과 지역 국회의원인 임종득 의원님 등 봉화를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을 도와 앞으로도 우리 봉화의 발전과 살기 좋은 봉화로 만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봉성면 우곡2리 권혁로 이장, 대통령 표창 수상



2023년 국가재난관리 유공 수여식에서 봉성면 우곡2리 권혁로 이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은 지난해 6~7월 집중호우 시 인명 보호 및 재산 피해 최소화화에 공적이 뛰어난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권혁로 이장은 집중호우가 발생한 지난해 7월 14일 금요일 새벽 마을 뒷산에서 큰 바위가 구르는 듯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 마을안길로 흘러드는 물길을 보고 급히 거동이 불편한 마을 어르신 등 10가구 16명의 주민들을 깨워 경로당으로 신속히 대피시켰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권혁로 이장은 “이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호우 때 재난대응에 노력하셨던 다른 시군의 이장님들을 대표해 상을 받게 되어 기쁘면서도 더 노력하라는 뜻으로 상을 주신 것 같아 2024년에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수상 소식을 들은 박현국 봉화군수는 “봉화군 대표로 권혁로 이장님이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봉화군 모든 읍면에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축하 인사말을 건넸다.

봉화군, 공무원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 ‘부패 NO! 청렴 YES!’ 구호 제창하며 청렴 실천 다짐



봉화군은 2월 1일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봉화군 직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봉화군 공무원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렴실천 결의대회는 직원 대표의 결의문 낭독 및 선서를 시작으로 2023년도 종합청렴도 결과 공유와 2024년도 실적 제고를 위한 청렴시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봉화군은 이번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통해 청렴 실천 의지를 대내외로 선포하고 전 직원이 청렴실천 결의문을 작성하는 등 금년에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직원 대표로 나온 신규 직원은 △공익추구 및 외부간섭 배제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지위·권한 남용, 갑질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 △금품·향응 수수 금지 등에 힘쓰고 실천할 것을 결의문 선서를 통해 다짐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봉화군 공무원의 청렴 의식 향상을 위해 청렴아침방송, 청렴콘서트, 청렴골든벨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전 직원이 청렴 실천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 봉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전했다.

한국중부발전-봉화군, 양수발전소 유치 감사행사 열어



한국중부발전과 봉화군은 1월 29일 봉화 청소년센터에서 ‘봉화양수발전소 유치 감사행사’를 개최했다.

한국중부발전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규 양수발전소 사업지로 봉화군이 선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현국 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유치위원장, 각 사회단체장, 군민 등 300여 명과 한국중부발전 사장, 처장 외 22명이 참석했으며, 사업추진경과보고, 감사패와 공로패 수여 등이 진행됐다.

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유치 결의를 다지고 압도적인 동의율로 화답하는 등 큰 힘을 실어주신 지역주민분들께 감사드리며, 봉화군과 상생 관계를 구축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양수발전소 유치는 1조 5천억 원 규모의 개척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시설공사에 따른 경제효과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봉화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며 “그동안 적극 지지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봉화군, ‘희망2024 나눔캠페인’ 목표액 초과 달성 - 목표액 160,627,000원 대비 360% 초과, 577,600,000원 모금



봉화군은 ‘희망2024 나눔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577,600,000원이 모여 당초 목표액인 160,627,000원을 360%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62일 동안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경북을 가치있게!’라는 슬로건으로 나눔캠페인을 진행했다.

추운 겨울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등 나눔과 기부 문화 조성으로 한층 더 따뜻한 봉화군을 만들었다.

캠페인 기간 중 △희망2024 사랑의열매 달아주기 행사 △집중모금 가두캠페인 △2024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 등 성금 모금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모금된 성금은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보내져 우리 지역의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생계비,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따뜻한 마음이 모여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봉화군, 주민과의 약속! 민선 8기 공약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직자 매니페스토 실천 교육 열어



봉화군은 2월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약사업 추진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매니페스토 실천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민선 8기 박현국 군수가 군민과 약속한 공약 사업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다시 쓰는 지방자치, 회복력(Resilience)’이라는 주제로 인구감소 위기, 경기 둔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주민 소통을 강조하는 공약 추진 방향 등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이날 강의에서 이광재 사무총장은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 눈높이 정보제공 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강의를 통해 군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을 어떻게 이행하고 실천할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전면 소천1리 박상철 이장, 고국 돌아간 외국인계절근로자와 멀리서도 정 나눠



외국인계절근로사업을 통해 인연이 된 농가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훈훈한 관계를 유지하며 우정을 나누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법전면 박상철 이장은 지난 2월 특별한 여행을 다녀왔다. 외국인계절근로 사업으로 인연을 맺은 베트남 국적 라이 씨(남, 42세) 초청으로 일주일간 베트남 관광을 다녀온 것이다.

지난해 박상철 이장은 수박과 당귀 농사철에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 외국인계절근로 사업을 통해 라이 씨를 비롯한 9명의 베트남 근로자를 고용했다.

근로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에서 숙식을 함께 하며, 휴일에는 관내 명소와 인근 지역으로 같이 여행을 다니고 송이축제에도 참여하는 등 근로 관계를 떠나 진심으로 가족처럼 지냈다. 이후 베트남으로 돌아간 라이 씨는 봉화의 정을 잊지 않고 박상철 이장을 자신의 나라로 초대해 한국에서 받았던 친절에 대해 보답했다.

박상철 이장은 “타국 근로자를 함께 일하는 동료처럼 대했을 뿐인데 잊지 않고 본인의 나라에 초대해줘 고맙다.”며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야 하는데 앞으로도 좋은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봉화군은 3월 6일 봉화군청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과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박현국 봉화군수와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 김세환 이사장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봉화군은 재단에 1억 5천만 원을 출연하고 재단은 봉화군 관내 소상공인들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출연금의 10배인 15억 원을 보증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3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확한 시행일은 이달 11일 이후 봉화군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봉화군 관내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최대 한도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봉화군에서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우리 봉화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봉화군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봉화군의 농특산물과 세계 요리를 접목한 퓨전 음식 개발해요~ - 지역특화식품 개발요리 활성화 교육 시작!



봉화군농업기술센터는 오는 9월까지 2024년 지역특화식품 개발요리 활성화 교육을 진행한다.

3월 12일부터 시작된 이번 교육은 한국전통음식연구소 소속 최은영 강사가 봉화군 우리음식연구회를 대상으로 총 7회 동안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봉화군의 농특산물과 세계요리를 접목한 퓨전음식 개발과정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 개발 메뉴로는 두부치즈프리타타, 봉화스튜, 마감자샐러드, 사과찜닭 등이 있으며 스페인, 러시아, 태국, 프랑스 등의 다양한 세계 요리와 접목된 메뉴들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다양한 농특산물을 활용해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봄으로써 농산물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퓨전 음식 개발을 통해 관광산업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순자 우리음식연구회장은 “퓨전음식 개발은 우리음식연구회에게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는 것 같다.”며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해 봉화군 외식산업을 활성화하고 한식을 세계화하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베트남 리 왕조의 발자취 따라... 베트남 호찌민 국립대학교 대표단 봉화군 방문



봉화군은 3월 19일 봉화군청 및 봉화군 일원에서 진행된 ‘베트남 호찌민 국립대학교 대표단 방문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베트남 호찌민 국립대학교 총장 부 하이 관을 비롯한 호찌민 국립대학교 대표단 17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봉화군과 호찌민 국립대학교 간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의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호찌민 국립대학교 대표단은 봉화군청을 방문해 박현국 봉화군수의 환대를 받고 봉화군 홍보영상 및 베트남마을조성 동영상을 시청했다.

이후 국내 유일의 베트남 리 왕조 유적지인 충효당과 재실을 방문하고 인근 관광지를 탐방하는 등 짧은 일정이지만 알차게 보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방문을 통해 봉화군과 베트남의 연결고리가 더욱 견고해진 계기가 됐다.”며 “K-베트남밸리 조성사업과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으로 가까운 미래에 호찌민 대학교 학생들이 이곳 봉화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봉화군, 한국수자원공사와 2024년 신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봉화군은 3월 20일 노후 상수관망 시설개선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2024년 신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신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95억 원으로 올해 시작해 오는 2029년까지 봉화군 관내 노후 관망정비 117km, 블록구축, 누수탐사 및 정비 등 상수관로를 정비할 계획이며, 올해 사업비는 59억 원이다.

봉화군은 지난 2019년부터 총사업비 83억 원을 투입해 1차 현대화사업(춘양 정수장 개량)을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6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회 사업은 사업대상지에 대해 유수율 8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노후 상수도 시설개선과 블록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구축해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민 생활복지를 향상시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배우 이성민, 봉화군 홍보대사 됐다!



봉화군은 3월 21일 이성민 배우를 봉화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봉화군은 21일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등 간부 공무원과 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으며, 군 특산품인 최고급 한약재를 먹고 자란 봉화 한약우 세트와 춘양목의 버섯세트 기념품 증정식을 통해 지역 먹거리에 대한 홍보에도 앞장섰다. 위촉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봉화군의 축제, 관광, 체육진흥 등에 대한 참여와 홍보 등을 펼칠 예정이다.

이성민 배우는 “고향인 봉화군의 홍보대사로 위촉돼 영광이고 앞으로도 군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성민 배우님은 우리 군에서 태어나 소천면 양원역을 배경으로 한 영화 『기적』의 주연으로 활약하셨고 사투리 연기에도 애정을 가지시는 만큼 봉화군과 배우님과의 인연이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대한민국 대표 배우인 이성민 배우님의 홍보대사 위촉 수락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군정 홍보에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터치 한 번으로 만나는 봉화군청의 모든 것!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도입



봉화군이 지난 3월 28일부터 청사 방문 민원인을 위한 청사 배치도, 직원 안내도, 봉화군 관광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터치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은 총 18대로 군청 로비에 비치된 통합 키오스크와 부서별 조직도 17대로 구성돼 있다.

봉화군 청사 로비 입구에 안내 통합 키오스크를 통해 업무 및 직원 검색, 주요 행사, 공지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봉화군 주요 관광지 소개, 군정 홍보 영상

등의 자료를 볼 수 있다. 부서별 출입문에 설치된 조직도에서는 부서 구성원의 업무분장, 연락처, 좌석 배치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사이동이나 조직개편 시 종이 조직도를 수정하는 번거로움 없이 시스템 연계를 통해 바로 처리해 빠르고 정확하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흐름에 발맞춰 도입한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을 통해 군민분들께 더욱 편리한 행정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봉화군,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추진... 선진농업기술 습득으로 농업경쟁력 향상



봉화군은 선진농업국의 농업·유통·경영기술들을 체험 및 습득해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5박 7일간 우수농업인 30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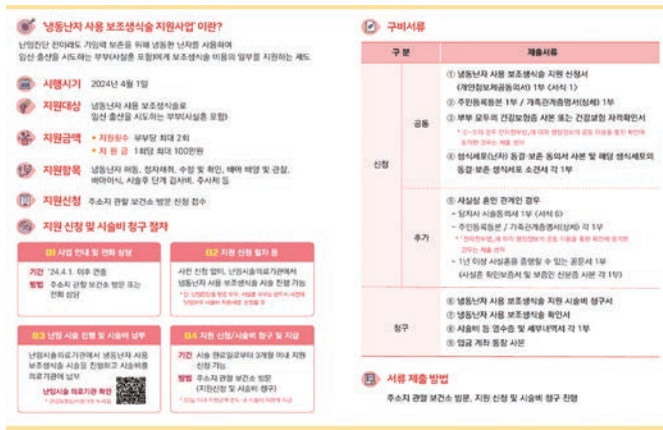
이번 해외연수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미래농업으로 알려진 스마트팜 기술 체험 및 습득을 연수 중점으로 계획됐으며, 이에 따라 스마트팜 강국으로서 세계적인 농식품 수출국 중 하나인 네덜란드가 연수국가로 선정됐다.

우리나라 스마트팜 혁신밸리 롤모델인 암스테르담

지역의 월드호티센터를 시작으로, 세계최대의 화훼경매장으로 알려진 알스미어 화훼경매장과 수상농장 플로팅팜 및 네덜란드 농산물유통센터, 암스테르담 꽃시장 등 선진농업국의 농업기술 및 유통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진행됐다.

봉화군 관계자는 “스마트팜 농업의 글로벌 선두주자인 네덜란드 해외연수를 통해 우수농업인들이 선진농업국의 농업기술을 체험 및 습득해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봉화군이 함께 합니다.”
봉화군, 임신과 출산 지원 신규사업 시행



봉화군은 저출생 극복 및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4월부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과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여성에게는 난소 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등 최대 13만 원,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비용 최대 5만 원을 제공한다.

더불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은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냉동 난자 해동과 보조생식술 비용을 회당 100만 원 한도로 최대 2회까지 지급한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문의하거나 문서24 또는 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아이 갖기를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지원으로 임신과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봉화군에 다시 찾아온 캄보디아 근로자... 캄보디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26명 입국



봉화군은 4월 18일 캄보디아 외국인계절근로자 26명이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국하는 계절근로자 대부분은 전년도에 농가에서 재입국 추천을 받은 성실 근로자이며 다음 달까지 55명이 입국하게 된다.

이날 입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무부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근로조건, 인권보호, 통역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봉화군은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공급

안정화 계획에 따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과 MOU 체결을 추진했다.

이는 해당국가의 국내외 문제로 인한 인력송출 중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각 국가의 근로자 간 경쟁을 유도하고, 고용농가에 우수한 근로자 선택권을 줄 수 있게 된다.

신종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상반기 550여명의 계절 근로자가 입국하게 되면 농업분야 인력부족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앞으로는 풍년농사가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 지도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봉화군-뜨선시 우호교류로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발전 다져



봉화군 우호교류단은 국제자매도시인 베트남 뜨션시의 공식 초청으로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뜨션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봉화군의 국제자매도시인 베트남 뜨선시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리(Ly)왕조 건국기념축제인 ‘덴도(DO-temple)’ 축제를 축하하고, 봉화군과 뜨선시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방문에는 보부상 공연단도 동행해 텐드 축제 개막식 때 보부상 재연 마당놀이 공연을 선보이며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알렸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뜨선시와의 자매결연은 양 도시 간의 문화, 예술,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 도시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상호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황바위 뜨선시장은 “텐도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방문해주신 봉화군 우호교류단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꾸준한 교류로 K-베트남밸리 조성사업의 성공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전했다.



설명절 맞아 노인요양시설 방문 위문품 전달

봉화군의회는 설명절은 앞둔 1월 17일 관내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생필품, 식품 등 위문품을 전달하며,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노인요양시설 운영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성금 전달

봉화군의회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0만원을 전달하였다. 봉화군의회는 성금이 사각지대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족 등 주변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바라며, 지속적으로 우리사회의 이웃들과 함께하며 보탬이 되기 위해 현장속에서 군민의 삶과 밀착된 의정활동을 펼칠것을 다짐하였다.

제26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개최

- ▶ 기 간 : 2024. 2. 14.(수) ~ 2. 22.(목)[9일간]
- ▶ 안건처리 : 조례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 202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감사위원 선임
 -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제26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개최

- ▶ 기 간 : 2024. 4. 11.(목) ~ 4. 19(금)[9일간]
- ▶ 안건처리 : 조례안 1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등
 - 2024년도 제1회 추가정정예산안

제26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개최

- ▶ 기 간 : 2024. 5. 22.(수) ~ 5. 31.(금)[10일간]
- ▶ 안건처리 : 조례안 9건 등
 -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의 건



경북시군의회의회장협의회 제320차 월례회,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성황리에 개최

경북시군의회의회장협의회 제320차 월례회를 봉화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개최되었다. 주요안건으로 『기초 지방의회 사무기구 체계개선』 촉구 건의안으로 지방의회의 자치와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으며, 월례회 종료 후 시트볼트 방문 및 백두산호랑이의 보금자리인 호랑이숲을 관람하며, 자연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상 희 의장

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김상희 의장은 제257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전국 기초의회의원 중 의욕적인 지방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의원에서 수여 되는 상으로, 김상희 의장은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리더십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며 군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이다.



박 동 교 부의장

『봉화군의의회 의원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박동교 부의장은 제262회 봉화군의의회 임시회에서 물가상승률(56.2%) 대비 20년간 동결된 의원활동비의 현실화를 통해,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원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봉화군의의회 의원 의원활동비를 15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의원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였다.



금 동 윤 의원

『봉화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금동윤 의원은 군민들의 실질적인 주민자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역량 강화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충분한 예산지원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읍면 특성에 따라 행정, 재정 등의 분야의 간사를 따로 둘수 있도록 규정하여 예산지원의 명확한 근거와 범위를 규정하였다.



김 민 호 의원

『2024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예결특위위원장)』

김민호 의원은 제263회 봉화군의의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24년 봉화군 제1회 예산안을 심사하였다. 본예산 5,400억원 대비 870억원이 증액된 6,270억원이 제출되었으며,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 복지를 위하여 혈세가 헛되지 사용되지 않도록 위원들에게 예산안 심사에 있어 심혈을 기울여 세심히 살펴 줄것을 당부하였다.



권 영 준 의원

영농철 대비 수해복구 및 농업시설 공사 신속 추진

권영준 의원은 제263회 임시회 제1회 추경 예산심사에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수해복구 및 각종농업시설 공사를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주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 소수를 위한 정책이 아닌 군민 다수를 위한 정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승 훈 의원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의 지역주민에 대한 선택예방접종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5분 발언

이승훈 의원은 제263회 봉화군의의회 임시회에서 봉화군민의 의료서비스 및 건강정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여성청소년 및 어르신들의 특정 질환이나 감염병 예방을 통한 건강한 일상생활 영위와 경제적 부담의 완화를 위해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에 대한 무료예방접종사업 확대와 이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황 문 익 의원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황문익 의원은 제262회 봉화군의의회 임시회에서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과 운영상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일부개정 하였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통하여 농축산물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 영농의 영위를 기하게 하고자 함을 강조하였다.



김 옥 랑 의원

『봉화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김옥랑 의원은 제263회 봉화군의의회 임시회에서 수화언어를 사용하는 관련 장애인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조성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한국수어 사용자의 의사소통과 사회참여 증진 및 자립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봉화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봉화군 수의사회, 장학기금 500만 원 기탁



봉화군 수의사회는 1월 4일 봉화군청을 방문해 지역 교육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사)봉화군교육발전 위원회에 장학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을 기탁한 수의사회 하종성 회장(내성동물 병원), 회원 이재석(영광동물병원), 하중엽(하수의과병원), 김서필(김서필동물병원)은 예찰지역 내 동물 진료, 전염병 예찰 및 예방치료, 검진 등 지역의 가축 질병 예방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하종성 회장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키우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현국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봉화군수)은 “지역을 위해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뜻깊게 쓰겠다.”라고 전했다.

춘양면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성금 기부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학생회 및 학부모회는 1월 3일 봉화군 춘양면사무소를 방문해 축제 및 바자회 수익금을 모아 희망2024 나눔캠페인 성금 62만5천5백원을 전달했다. 봉화군 춘양면에 소재한 국내 유일의 산림계 특성화고인 한국산림과학고는 이날 성금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목재를 사용해 정성스럽게 만든 좌식 테이블 5개도 춘양면사무소를 통해 관내 경로당에 전달했다. 장원경 춘양면장은 “한국산림과학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지역 내 소외계층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성금을 마련해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마음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도촌 양계협의회, 봉화군에 계란 1,440판 기부
- 작년 장학기금 500만원 기부에 이어 금년 850만원 상당 계란 기부



봉화군은 도촌 양계협의회에서 1월 26일 봉화읍 해저2리 솔안마을 꽃대커뮤니센터 광장에서 개최된 ‘사랑의 온기 나눔 릴레이’행사에 참여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계란 1,440판(850만 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부받은 계란은 행사 주최와 주관단체인 봉화군과 (사)봉화군종합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취약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도형 도촌 양계협의회장은 “온기 나눔 릴레이 행사에 동참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사료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장경영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계란을 기부해주신 도촌 양계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취약계층에 소중한 마음 잘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도촌 양계단지는 7개 농장에서 141만수의 산란계가 사육되는 전국 최대규모의 산란계 밀집단지로서 하루 평균 120만 개의 계란이 생산되어 전국 2%가량을 담당해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봉화청량산김치,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 실시



박현국 봉화군수는 “매년 사랑의 김치 나눔을 통해 관내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눠 주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봉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봉화청량산김치 농업회사법인(주)은 4월 8일 봉화군 제2농공단지에서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에 김치 5kg 600박스(1,600만 원 상당)을 지원했다. 봉화청량산김치는 지역사회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봉화군과 지역상생협약을 체결해 매년 봄철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김치를 기부해왔다. 이상우 봉화청량산김치 대표는 “봉화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며, 앞으로도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행사를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봉화군 치매안심센터, 랜선으로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눈길’ - 2024년 중점 경로당 활성화 사업



봉화군 치매안심센터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봉화군 노인복지관과 연계해 지난 23일 중점 경로당 15곳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봉화군 노인복지관 행복선생님과 봉화군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랜선으로 진행됐으며, 취약지역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인지자극 창조적 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했다.

인지자극 창조적 활동은 치매예방 및 인지기능 유지를 위한 활동으로 만들기 활동을 통해 쉽게 손상되지 않는

창조성을 자극해 즐거움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활동이다. 예술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재미있고 긍정적인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해 어르신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평소 해보지 않았던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통하여 어르신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청년 마음건강 뽐뽐하게! 봉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마음건강사업 행사 성료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4월 26일 봉화군청 잔디광장에서 공공기관 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청년마음건강사업-청년 마음건강 뽐뽐하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악성 민원 등으로 업무에 지친 정신과 몸을 힐링하고, 분주한 일상으로 방전된 마음을 점검하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청년고민상담소, 생명사랑충전소, 추억충전소, 에너지충전소’라는 각 주제로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과 전통놀이, 추억의 과자 나누기, 커피차 무료이용, 캠핑 휴식존 등

다양한 부스를 운영하면서 스스로 마음건강 돌보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조성일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사회적 부담으로 스트레스, 우울 등 마음 건강 문제를 겪는다.”면서 “청년들이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JCI봉화청년회의소, 여성예비군 등 관내 청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청년마음건강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시보공무원 정규임용 축하 및 시보 떡 전달



봉화군청공무원노조(위원장 하승영)는 1월 초와 5월 초에 상반기 시보 해제에 따른 정규 임용 대상자 20명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신규 조합원들의 정규 임용을 축하함과 더불어 새내기 공무원들의 반강제적 ‘시보 떡 돌리기’ 문화를 개선하고자 노동조합에서 준비한 ‘시보 축하 떡’을 전달함과 동시에 신규 공무원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악성 민원 대응 1인 시위 및 연대 투쟁



봉화군청공무원노조(위원장 하승영)는 2024년 4월 22일(월) 군청 정문에서 악성 민원 대응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하여 진행된 이번 시위와 더불어 4월 29일 서울 시청역 앞에서는 공노총과 전공노 조합원 1000명이 참석하여 악성 민원 희생자를 추모하고 악성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정부에 촉구하는 공무원 노동자대회를 가졌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사무 종사자 격려

봉화군청공무원노조(위원장 하승영)는 2024년 4월 5일 ~ 6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여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피로회복제를 전달하였다. 총선을 앞둔 2023년부터 시군구 연맹과의 연대 투쟁과 중앙부처 개선 요구를 통하여 관련 복무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선거사무에 종사자에게 최대 5일의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억지춘양 소로지구 전원마을

운곡천의 맑은 물과
집앞에 펼쳐진 넓은 들판!
꿈꿔왔던 멋진 전원주택을
이곳에 지을 수 있습니다.

분양안내

- 위치**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1017 ((구) 749) 번지 일원
- 분양면적** 13,016.9㎡ (25필지)
- 필지면적 : 호당 495㎡ ~ 614㎡
- 분양가격** 평균 256,280원 / ㎡
※ 주택 신축시 저리융자 가능(최대 2억원)
- 분양신청** 봉화군청 인구전략과 정주기반팀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청 별관2층
인구전략과 ☎ 054-679-6146~6148

단지내 넓은 도로

- 양방교행 도로
진입도로 8m, 단지내 6m
- 진입도로 보행자 안전 보도
- 과속방지턱 및 횡단보도

입주민 편의시설

- 단지내 작은정원, 광장
- 휴게쉼터 및 파고라, 벤치
- 공용주차장
- 공동이용공간

편리한 인프라시설 완비

- 상수도
- 우수 및 하수관 연결
- 전기·통신선 지중화
- 가로등

청정한 자연환경! 편리한 생활여건! 억지춘양 소로지구 전원마을!!!



수려한 관광자원

- 각화사, 태백산사고지(9.5km)
- 국립백두대간수목원(15km)
- 운곡천, 명호이나라리강(17km)
(낙동강시발지)
- 분천산타마을(17km)
- 청량산도립공원(28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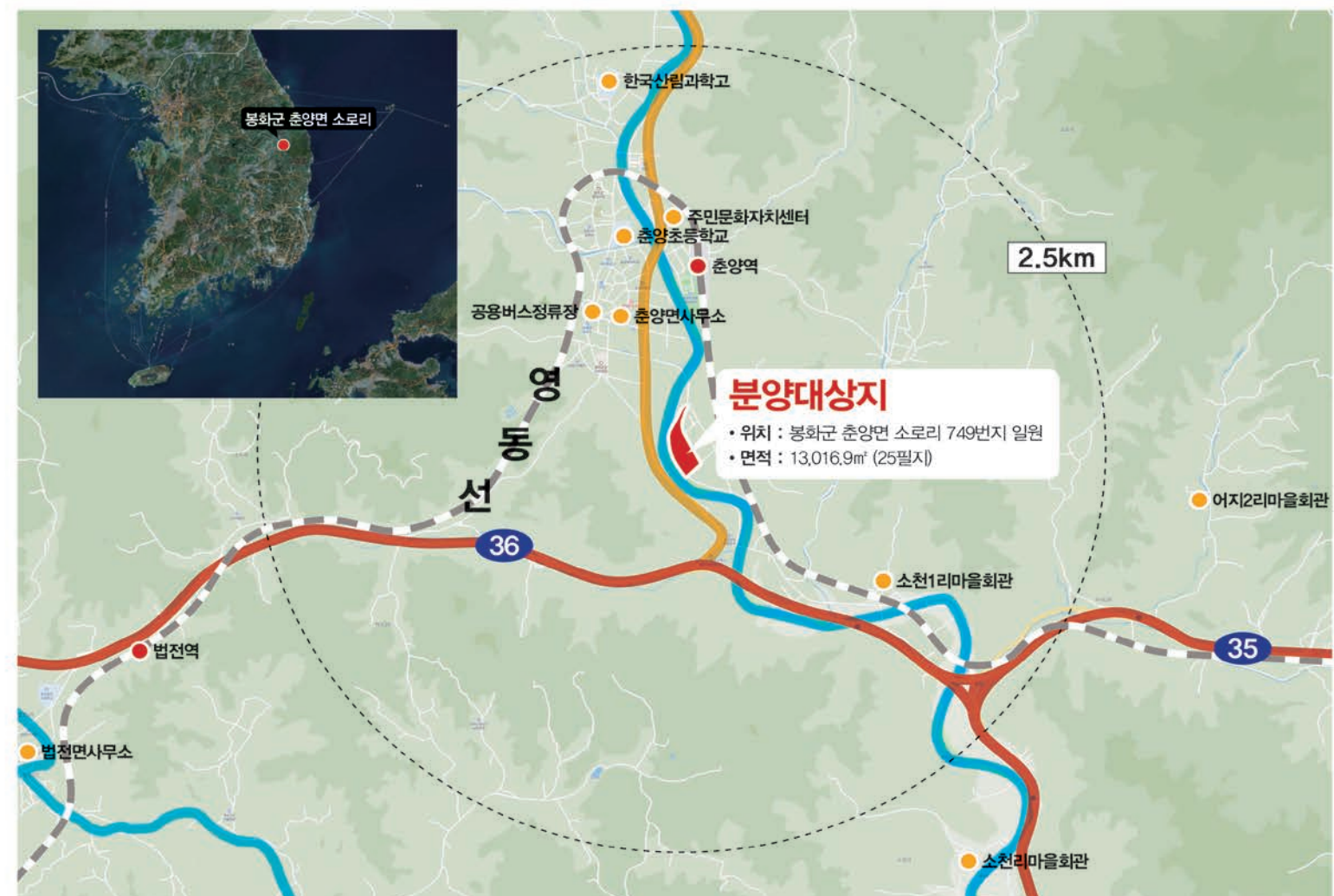
면소재지 내 위치

- 춘양면사무소
- 초·중·고등학교
- 억지춘양전통시장
- 공용버스터미널
- 기차역
- 면체육공원



편리한 교통도로

- 봉화, 영주(국도36번)
 - 울진(국도36번)
 - 영월(지방도88번)
 - 태백(국도31번)
 - 안동(국도35번)
 - 영양(국도31번)
- ※동서울터미널 하루 5회 운행



전원주택 용지분양 문의 인구전략과 정주기반팀 ☎ 054-679-6146~6148



봉화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사업 임대주택 분양안내

- ▶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
- ▶ 위 치 : 물야면 북지리 727일원
- ▶ 사업내용 : 장기체류형 주택 10동(50㎡), 중단기 체류형 주택 11동(30㎡), 주말농장 3,000㎡, 커뮤니티센터 1동(199㎡)
- ▶ 입주자모집 : 2024년 8월 이후 임대분양 모집 예정
- ▶ 입주자격 : 관외 1년 이상 거주자 중 봉화군 전입 가능자에게 우선 공급 예정
- ▶ 입주시기 : 2025년 상반기
- ▶ 임대기간(예정) : 장기체류형(1년~2년), 중·단기체류형(6개월~1년)
- ▶ 임대료 : 월 임대료 납부(평형별 차등)
※ 만19세 ~만49세 청년이 봉화로 이주 후 임대 시 임대료 월 10만원 지원
- ▶ 문 의 : 인구전략과 정주기반팀(054-679-6146~6148)

숲속도시 봉화로의 FOREST CITY BONGHWA

행복한 귀농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 실행 전에
농촌의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주민과의 교류하는 기회 제공



전원생활체험

전원생활체험을 통해
봉화군의 특장점 홍보와
도시민 이주욕구 유발



귀농지원사업

자격을 갖춘 귀농인에 대하여
이사비용 · 빈집수리비 · 정착장려금
· 교육훈련비 등 지원



봉화爰살래

귀농귀촌, 촌캉스 등의 유행으로
농촌생활을 꿈꾸는 도시민에게
장기간 농촌체험기회 제공